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연에 실은 통일염원,
멀리 북한까지 날아가길



당신이 통일주인공

음식으로 만든 작은 통일
북한요리전문가 윤선희 씨



통일돋보기

3만 탈북민 시대!
통계로 보는 통일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건의

미·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

유현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2017.1.20.)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미국 신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아직도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2016.12.2.)를 통해 1979년 대만과의 단교 이후 미국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더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2017.1.20.)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일면 모순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 본격적인 ‘거래’에 나서기에 앞서, 상대를 흔들려는 의도적인 협상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반된 정책노선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욱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미국 주요 행정기관의 아시아 담당 실무 책임자가 인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기조에 대한 자체 검토 조차도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 타격이나 정권교체 작전을
하나의 선택지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기조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불확실하다. 미국의 미·북 및 한·미 관계는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통령 및 주요 관료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한 북한의 북극성 2호 발사(2017.2.12.)와 유엔 금지 화학물질을 사용한 북한의 김정남 암살(2017.2.13.)로 미국에서 북한 위협론과 대화무용론이 더욱 팽배해졌다. 3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반관·반민(트랙 1.5) 대화가 무산된 것은 이를 방증해 준다.





강원 홍천군 서면 일대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이 펼쳐져 장병이 헬기에서 내린뒤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 타격이나 정권교체 작전을 하나의 선택지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아직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보복으로 한·미·일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선제타격 및 정권교체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미국의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는 나아가 '북핵 불능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동결은 검증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으며,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및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해체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주고받기 식 미·북 대화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한,
미·중 관계의 측면에서 북·중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북핵 6자회담에 모인 한·미·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 관련 담당 실무자의 인선을 완비하고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검토(bottom-up review)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 치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2270호와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에 동참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이나 북·중 밀무역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중 간 지정학적 군사 대립의 측면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력과 국경을 맞닿게 된다. 중국이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한, 미·중 관계의 측면에서 북·중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2.24)에서 북한 미사일이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판단된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중국 봉쇄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의 추진 가능성과 협력의 수준을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관 및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하는 중국의 선제적 대북 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관계가 불확실해질수록 북한을 더욱더 전략적 완충지로 유지하고자 한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한반도 안정을 꾀하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되거나,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또는 기술자가 국제테러 집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 북한 군사제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 북한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은 “6자회담 재개 타개책을 찾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와 소통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2.22). 또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주장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원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김정남 암살 후 3일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2.23)를 취한 것이 방증하듯이, 중국은 현시점에서는 압박을 통한 북한 옥죄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를 끝낼 때까지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시진핑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이행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서 정세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information), 역정보(disinformation), 오보(misinformation)를 관련 국가에게 송출(signaling)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확실한 미·중 관계와 그와 연계되어 더욱 불확실한 북·미, 북·중, 한·미, 한·중 관계에서 단편적 사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함몰되기 보다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큰 그림에서 미국과 중국이 송출하는 한반도 정책 관련 정보를 더욱 더 냉철하게 선별(screening)해내야 한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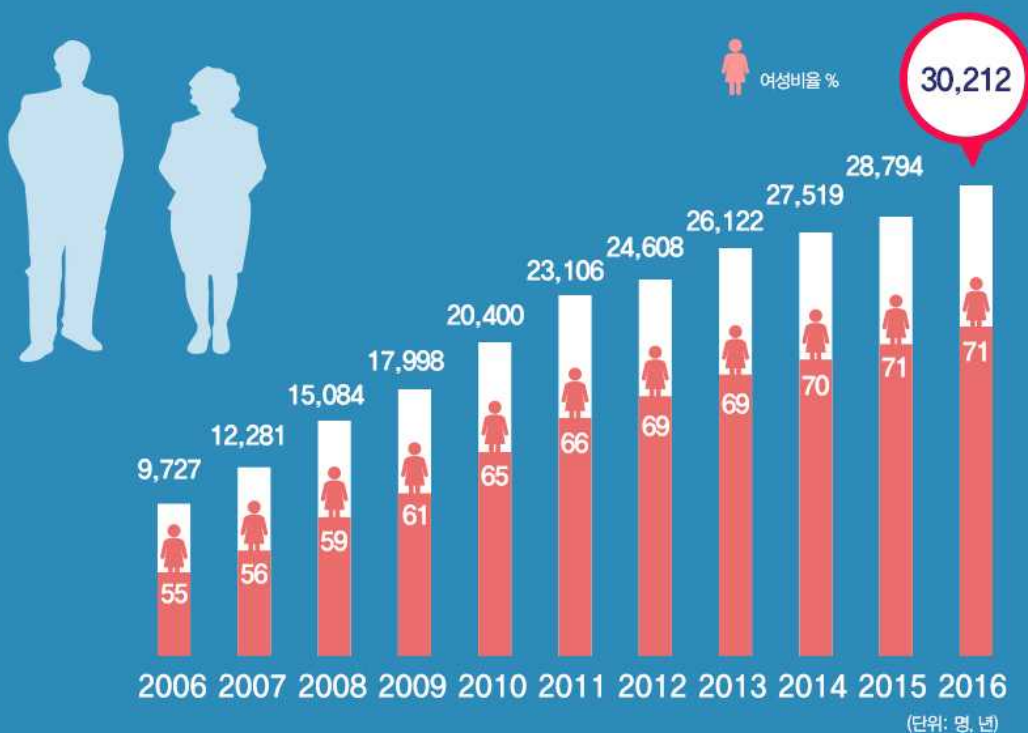
3만 탈북민 시대! 통계로 보는 통일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0,212명(통일부 집계)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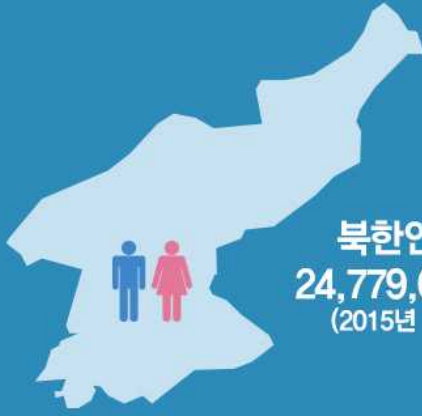
말 그대로 '3만 탈북민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북한 주민 천 명 중 한 명은 남한에 와 있는 셈입니다.

탈북 지역이 주로 함경북도 쪽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마을에 한 사람은 남한에 와 있다'는 한 탈북민의 말이 실감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에 최근 10년간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을 알아봅니다.

2016년까지 누적된 탈북 입국자수 30,212명



북한 주민 1,000명 중 1명은 남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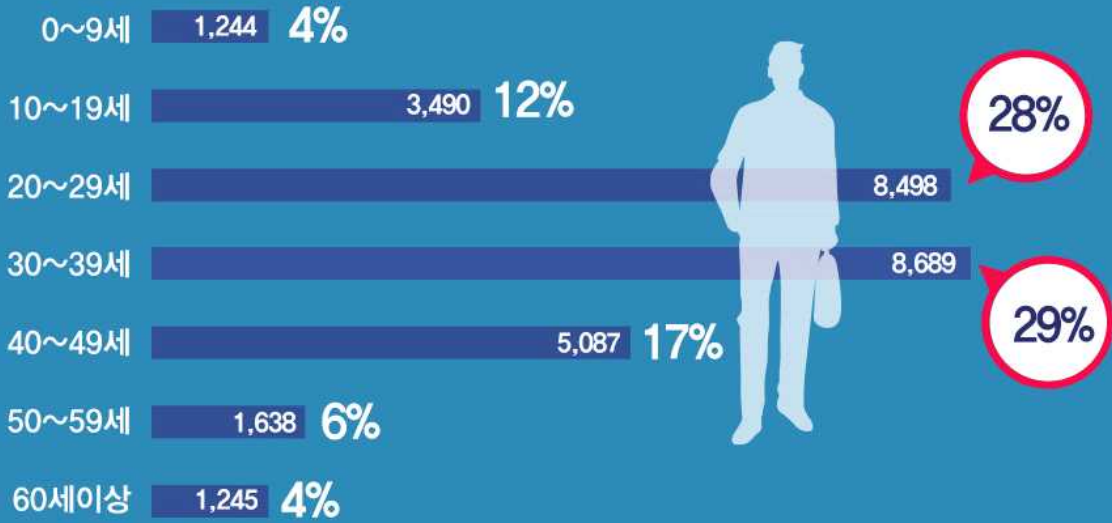
북한인구
24,779,000명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30,212명
(2016년 기준)

탈북민의 57%가 20~30대 청년층

(단위: 명, %)



*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 제외

탈북 당시 학력은 '고등중 졸업'이 대부분

(단위: 명)





*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 인원 제외, 해당 학령별 중퇴자 포함
* 북한의 고등중학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탈북 당시 학력은 '고등중' 졸업 → 남한 정착 후 고등교육 진학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참가율



※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2016년 12월 기준), 통일부, 2016통일백서, 통일부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김정남 암살,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될 것”

‘김정남 암살’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더보기](#)



왕이 “사드 배치 반대” 윤병세 “사드 보복 반대” 6개월만의 냉랭한 만남

중국이 6개월 만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더보기](#)



美전문가 “향후 1년간 북한문제 악화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적어도 향후 1년간 북한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中, 北 미사일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여t 반송

중국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13일 11억 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반송했다고 보도했다.

[+더보기](#)



‘암살 1순위’ 태영호, 당국 만류에도 공개활동 강행키로

정보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신변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외부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기](#)

“北 미사일 강력 규탄” 안보리 만장일치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보기](#)



트럼프 “북한 크고 큰 문제, 매우 강력히 다룰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 (big, big problem)라며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다룰 것(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틸러슨 美국무 “한국, 방위비 이미 ‘많이’ 부담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민주당 벤 카딘 상의원에게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보기](#)



개성공단기업 67% “공단 문 열면 재입주하겠다… 숙련노동자 때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67%는 이 공단이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보기](#)



美의회 “사드배치 촉구” 초당적 결의안

미국 의회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여야 대선 주자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보기](#)

한국경제

사드 5~7월 배치 합의 “내달 B-1 폭격기 출동”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다음달 시행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보기](#)



매티스 “韓방위공약 100% 믿어도 좋다” 美전략무기 내달 배치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사드 보복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더보기](#)

사람과 꿈과 통일을 잇는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을 아시나요?



우리온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탈북민 상당수가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보고 탈북민 출신의 **박대현 대표**가 직접 만든 커뮤니티인데요.



PC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을 위해 여러 정착지원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SNS로 공유하고,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직접 상담해주거나 전문가와 연결해 무료로 멘토링을 해주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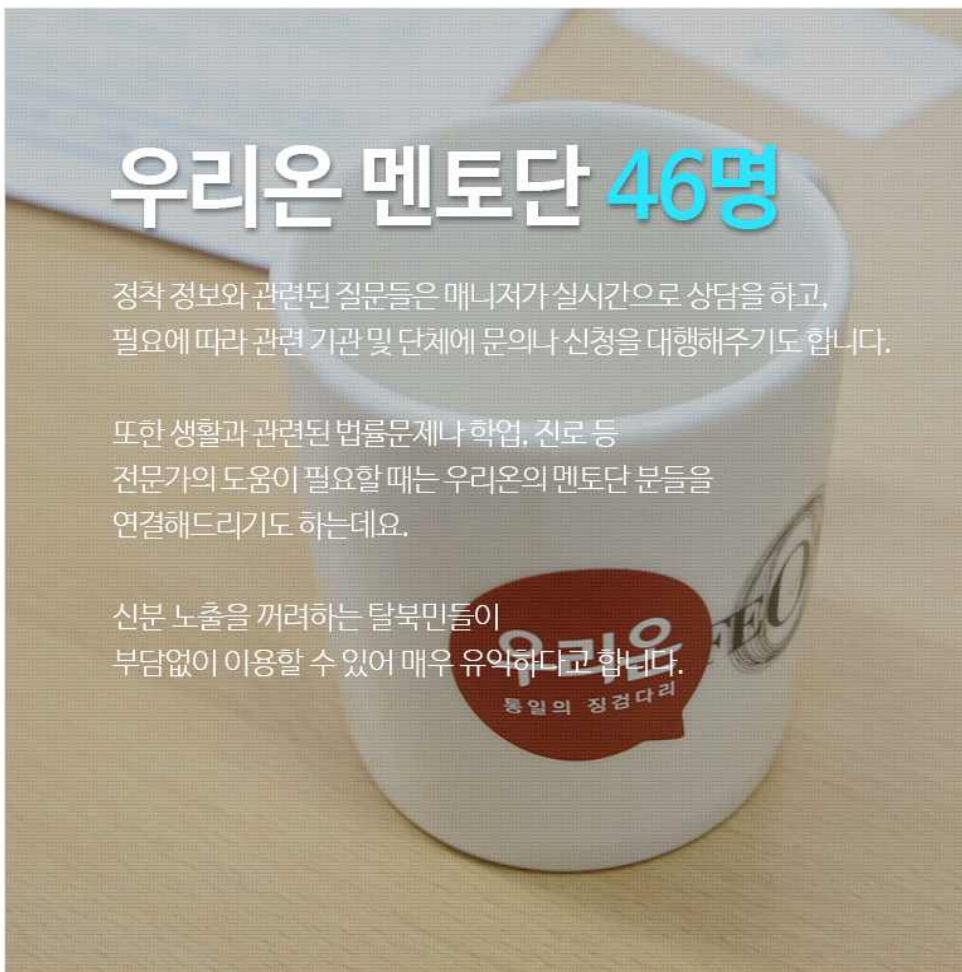
“찾다 보면 정착지원 정보들이 많은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별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매일 수십 개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죠.”



우리온 정보나눔 702건
탈북민 회원 5,500여 명
정보노출 하루 8,000회

‘우리온’의 박수향 매니저는 매일 40여 개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취업, 의료, 교육, 주택 등의 탈북민 지원 정보들을 체크해 ‘우리온 사이트(woorion.net)’와 카카오토티, 페이스북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온 멘토단 46명

정착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은 매니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문의나 신청을 대행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나 학업, 진로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온의 멘토단 분들을 연결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탈북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온
통일의 정검다리

최근엔 탈북민들 스스로

• • • •
무료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여성 탈북민이 고향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아기웃과 장난감을 보내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감동적인 사연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울산에 계신 아주머니의
'반찬나눔'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나신다고

한국에 무연고로 온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반찬을 보내주신
아주머니(울산 천사님)가 계셨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택배비까지 다 부담하시면서요.”



“반찬을 받은 청년들이 명절마다 편지를 보내오곤 했는데,
한 번은 **'엄마의 아들 ○○○가'**라고 보내주셔서
저희 모두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온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진범 목사는

남북한 청년들 간 친구를 맺어주는

오프라인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청년 운동회나 토크, 아카데미, 통일학교 등 정기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함께 통일을 생각할 기회들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온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잇다'라고 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이어주고' 자유와 미래를 위해 오신 분들에게 '꿈을 이어주며'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해 '통일을 이어주는' 리더가 되도록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온처럼 남과 북을 잇는 노력들이 많아져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통일이 빨리 오길 함께 응원해봅니다.

연에 실은 통일염원, 멀리 북한까지 날아가길

‘제6회 통일 염원 연날리기대회’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던 주말 오후,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는 두꺼운 외투에 번호표를 달고 있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서울 강동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6회 통일염원 연날리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대회는 서울 강동구협의회가 2006년부터 기획해온 정월대보름 민족 행사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로지 ‘통일’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 안, 연날리기대회가 시작된 행사장엔 흥겨운 팽파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가 시작됐다는 사인이다. 멋진 군복 차림으로 참가한 강동구 여성예비군들은 사물놀이에 맞춰 멋진 춤사위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공영순 상임고문의 개회선언이 선포되고, 천만 시민들의 국민의례와 묵념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동구협의회 이종춘 회장은 “우리 민족의 살길은 오로지 통일뿐”이라며 “우리의 통일 염원이 북으로 전해지도록 연을 힘껏 날려 달라”는 개회사를 전했다.

축사를 전한 이해식 구청장은 이날의 사나운 날씨를 현재 남한의 상황에 비유하며 “바람이 많이 불수록 연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소원을 날려 보내자”고 말했다. 또한 조동탁 구의장은 달이 제일 밝고 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일이 더욱 앞당겨지고 대한민국 모두가 빛나는 한해가 되길 기원했다.

GoGo~

통일을 향해서!





▲ 이종훈 강동구 협의회장



▲ 연날리기대회에 참여한 강동구 여성예비군 회원들

따끈따근한 시루떡 나눔과 꿈을 잇는 풍선다리

축사가 끝나고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는 시루떡 커팅식이 진행됐다. 삼삼오오 손을 모은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는 뜻을 담아 떡을 자르고, 시민들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조각을 나누었다. 한영자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연날리기 행사의 경과를 보고하며 앞으로 8천만 국민이 함께 행군하는 연날리기 행사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 제6회 통일염원 연날리기대회 떡케이크 커팅식

‘탕’하는 신호탄과 함께 행사장을 장식하던 풍선돔이 터졌다. 형형색색의 풍선들은 마치 남과 북을 잇는 꿈의 다리를 만들듯 하늘 위로 기다란 풍선다리가 되어 날아갔다. 이어 이종훈 회장의 연 시연이 펼쳐졌고 참가자 전원이 연을 띄웠다. 알록달록한 연들은 통일을 향한 염원을 품은 채 하늘로 솟을 추듯 올라갔다.

높이 나는 연처럼 통일도 대한민국도 ‘화이팅!’

성내초등학교에 다니는 최준혁 학생은 노란색 가오리연을 날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는 준혁이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작년 보다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아무래도 통일이 가까워진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강동구의회 조용구 의원도 연날리기 삼매경에 빠졌다. 조 의원은 “바람이 세 연이 더 잘 날아 간다”며 “현재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민족 예겐 고난을 잘 헤쳐 나갈 능력이 있기에 충분히 이를 이겨낼 것”이라는 응원을 전했다. 우리 민족예겐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능력이 있다”는 응원을 전했다.



◀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 시민들
▼ 하늘 높이 나는 연



이날 창작상을 받은 김영선 씨는 하얀 비닐 연 위에 ‘2017 통일염원 강동구민 연날리기대회’라는 문구를 새겨 왔다. 그는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 고향 생각도 나서 매년 연을 만들어 참석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두 재활용품을 활용해 연을 만들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연을 잘 날리려면 풍향에 따라 좌우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날리기와 통일이 비슷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연날리기대회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무대 앞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박 터트리기 등의 전통놀이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제기차기 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어린이 도전자들은 제기를 2개 이상 찰 때마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받아갔다.



▲ 창작상을 수상한 김영선 강동구민



어느덧 연날리기대회가 막을 내리고, 시상이 시작됐다. 심사 기준은 연이 큰 원을 그리며 끝까지 멀리 떠 있는 것. 땅에 떨어졌거나, 100미터 이상 올라가지 못한 연은 모두 실격 처리됐다. 수상자는 대상 1명(최종성), 금상 3명(김인길 외), 은상 5명(이수경 외), 행운상 4명(신동진 외), 창작상 4명(김영선 외) 등 총 21명이 선정됐고, 이들에게는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자전거, 커피메이커, 쌀, 김 등이 수여됐다. 경쟁한 어른들 틈에서 은상을 수상한 한 어린이는 상품으로 자전거를 받아 가며 전진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흥평에 나선 이종훈 회장은 “사공이 가장 괴로울 때는 풍량이 불 때가 아니라 바람 한 점이 없는 날”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이 거센 바람에도 높이높이 연을 띄운 것처럼, 다 같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가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고 말했다.



▲ 제6회 통일염원 연날리기대회 행사 진행요원들과 단체 기념 촬영

나만의 돈벌이를 찾아라! 북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들

문경근 기자(서울신문)



남한에서 취업에 민감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이다. 청소년들 속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도 인기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기 직업은 뭘까. 기존대로라면 군인, 경찰, 당 간부, 외교관, 무역일꾼, 의사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택시기사, 운송업, 요리사, 개그맨 등 나만의 돈벌이 직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권력 보다 돈벌이, 북한은 지금 **자영업 열풍**

북한 사람들도 남한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 권력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바 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무조건 정권에 충성하는 권력을 선호하기 보다는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돈벌이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화폐가 인기가 없어지자 미화인 '달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택시기사, 달러 장사꾼 등이 인기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특히 부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군들도 새로운 선호 직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 중장비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를 포함해 요리사, 개그맨 등도 있다.

외화와 내화 쓸어 담는 '택시기사' 붐

우선 북한에서 택시기사가 인기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채용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기도 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6월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RFA에 “평양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택시기사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직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무더위 햇볕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택시 운전기사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라도 벌 수 있어 간부 이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의례 채용 과정에서는 뒷돈이 오간다. 과거 북한 내각 전신인 정무원 소속 택시 기업소 간부를 하다 탈북한 강명섭(56) 씨는 “북한 내에는 외화와 내화 두 부류의 택시가 있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모두 외화를 선호했다”면서 “과거에도 아는 사람만 아는 인기 직종이었지만 지금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택시기사

지방과 도시를 오가는 '운송사업'도 인기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축소되자 국내에서 제한된 여건을 활용한 돈벌이 가운데 택시사업이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개인 사업자들이 기업소 간관을 내걸고 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남포, 평성, 신의주, 원산 등지에서 활발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비 운전기사과 버스 운전기사들도 선호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중앙의 지시로 지방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중장비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뒷돈을 주고 사용한다. 하루 대여료가 과거 30 달러에서 50 달러까지 올랐다고 한다. 기차와 버스 등 운행 수단이 부실한 지방의 경우 버스기사도 돈벌이가 쏠쏠한 직업군으로 불린다. 지방과 도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면서 운송료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 지하철

신흥 부자들 겨냥한 '요리사', '개그맨'은 부업



북한 해령화관에 있는 찰판구이집 요리사들과 김정은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신흥 부자들의 파티에 전문 동원돼 돈을 받는 직업군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호텔 등 대형·고급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들은 신흥 갑부들의 생일이나, 회갑연 등 주요 행사용 요리를 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일종의 부업인 셈이다. 평양에 있는 국립연극단 배우들 즉, 북한의 개그맨들도 신흥 갑부들의 주요 행사장에서 미니 공연을 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한편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인기 있는 직업은 외교관이나, 무역일꾼이다. 외교관들은 자유롭게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경쟁력이 높고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등을 나와야 가능하다. 무역일꾼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북한 외교관들과 무역일꾼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중무역으로 호황 맞은 전기제품 수리공

전기 장비를 다루는 기사도 인기 직업이다. 전기제품들을 수리해주고 돈을 받는 부업이 확산되면서 덩달아 성업이다.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지나간 이후 대중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값싼 중국산 전기제품들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강원도 원산항을 통해 냉장고, TV, 선풍기 일본산 중고가전 제품도 많이 들어왔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너도 나도 가전제품을 구비해 나갔다. 북한에 낙후한 전력 사정과 상관없이 재산의 의미와 위세가 있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구매했다. 이렇다 보니 전기 제품에 대한 수리 요구가 늘어나면서 전기기사들이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반면 북한에도 비인기 직업들이 있다. 광산, 석탄들을 캐는 광부들과 산속에서 벌목을 하는 임업 노동자들, 농사하는 농민들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보니 광산·광업대학, 지질대학, 지리대학, 임산대학, 농업대학 등은 비인기 대학들이다. 북한에서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갈수 없게 됐을 경우 선택하는 학교들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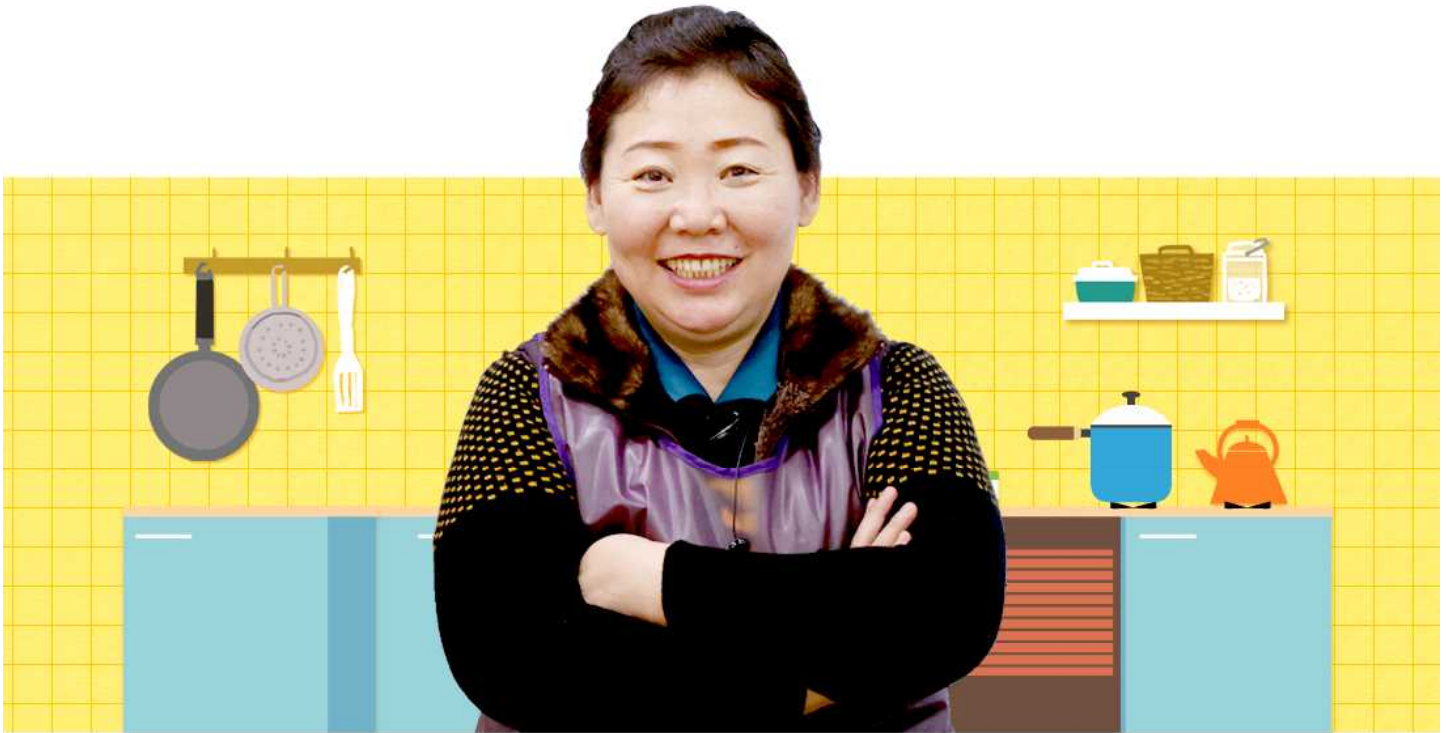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

〈사진자료: 연합뉴스〉

음식으로 만든 작은 통일

‘북한요리전문가 윤선희 씨’

한 케이블 TV의 음식 대결 프로그램 녹화가 있던 날, 우승자로 호명된 윤선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사위원이었던 백종원 씨가 그녀가 만든 평양어죽을 맛보며 연신 ‘감사하다’는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음식은 다 먹어볼 수 있어도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먹어볼 수 없는 요리가 북한요리인 까닭이다. 북한의 국영식당 요리사에서 남한의 북한요리전문가가 된 윤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남한 음식을 배우다

일산에 있는 한 평양냉면집, 분주해 보이는 주방 안에서 윤선희 대표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 밀려오는 주문에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묵묵히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자부심이 묻어난다. 메밀면 한줌에 양파, 배, 오이, 편육과 삶은 달걀이 올라간 모양은 우리네 냉면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북한 토박이 전문 요리사의 손끝에서 탄생한 냉면 맛이 자못 궁금해졌다.

올해 탈북 8년 차가 된 윤선희 대표는 마흔 셋에 한국에 들어와 바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북에서부터 30년 넘게 칼을 잡아온 그녀였기에 요리 하나 만큼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커다란 숙제가 생겼다.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양념장 이름들이 모두 생소했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그래도 명색이 국영식당 요리사였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종류별로 체험해보는 것이었다. 남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설렁탕부터 베트남 쌀국수, 피자, 냉면, 샤브샤브 등 17개 음식점에서 일하며 다양한 음식들을 연구한 것이다.

북한 김치 홍보가 이어준 ‘한식대첩3’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윤 대표는 문득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 김치’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김치사업이었다. 남한 김치도 맛이 좋지만, 북한 김치 고유의 깊고 시원한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특히 김치의 짠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김치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

“북한 김치는 생선을 삭혀서 양념을 만들어요. 배추나 무 등 김치 걸 재료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대신 단백질이 부족한데 생선을 삭힌 양념을 넣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소금을 적게 써서 짜지도 않고, 맛이 깊은 데다 국물이 많아 시원한 게 특징이죠. 김치사업은 2014년부터 했는데, 알음알음으로 주문하는 분들께 만들어 보내드리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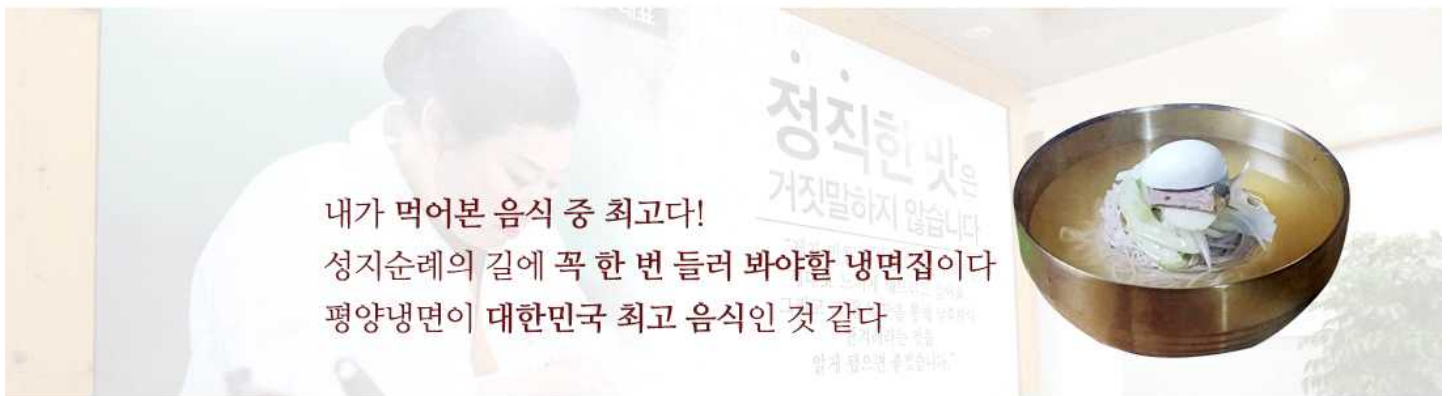
아는 사람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바로 케이블 티브이의 ‘한식대첩’이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시즌2에 출연했던 북한팀 동기들이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심사위원단이 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던 것이다. 그간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맛봤던 남한 음식을 떠올려 보니 동기들의 말이 영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설픔게 남한 음식을 흉내 내느니 ‘내 재량껏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던 윤 대표는 어느새 10회까지 올라가며 두 번의 트로피를 받게 됐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우리가 전 세계 음식을 다 맛봐도 북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면서 귀한 우리 음식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북한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야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했어요. 가끔 북한 음식을 낯설어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민족이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 그 맛이 잊혀졌다는 것이니까요.”



그녀를 버티게 해준 따뜻한 응원의 글들

당찬 성격의 그녀지만 남한에 온 얼마 동안은 윤 대표도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사회구조와 언어, 생활 방식이 모두 낯선데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나는 어머니와 아들 때문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난 아들은 항상 코 훌리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3년 뒤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윤 대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얻게 됐다.



내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다!
성지순례의 길에 꼭 한 번 들러 봐야할 냉면집이다
평양냉면이 대한민국 최고 음식인 것 같다

그때부터 김치사업을 시작한 윤 대표는 현재 작은 평양냉면 집도 운영하고 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북한 음식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의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이 블로그나 SNS에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그간 힘들었던 날들을 보상해주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윤 대표는 작은 소망이 생겼다. 더 많은 북한 음식들을 만들고 알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맛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북한 음식이 입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껏 그녀의 음식을 좋아해준 사람들도 많았으니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싶다.

“북한 음식은 각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요. 아주 맵거나 짜고 달지도 않지만, 먹다 보면 은근하고 깊은 맛을 느끼게 되죠. 건강에도 좋고요. 통일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이 만나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작은 통일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한국은 기회의 땅,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녀는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계급에 따라 주어진 일만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경우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놓이다보니 적응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며, 어딜 가든 항상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만나야 할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윤 대표는 요즘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다. 요리사로서만이 아니라 한 업체를 대표하는 사업가로서 직원들에게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알아두기 위해서다. 이에 경영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노트에 꼼꼼히 적고 숙지하고 있다. '좋은 사업가로 성장하려면 아주 소소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표의 철칙이기 때문이다. 윤선희 대표는 앞으로 북한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자신처럼 창업을 준비하는 탈북민들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행복이에게 '딱 친구'가 생겼어요!

글. 권혜리/그림. 이택종

통일 후 평양, 새싹국제초등학교





옆반에 있는 일본애가 그러는데 원래 독도는 일본 땅인데 남북이 통일 된 후 우겨서 한국 땅이 된 거라며?

뭐???



어? 남북이 통일 된 후 힘이 세져서 억지 쓴 거라던데? 아니야?

주춤

아니~개네는 아직도 그렇게 우기니?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거든.

통일 후 남북한에 흩어져
있던 독도 소유권에 대한
오래된 근거 자료를 다 모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판결이 난거잖아!



아하 그렇구나!! 미안~
내가 잘못 알았나봐.
그런데 너희들 진짜
호흡이 찰떡궁합이다.
둘이 많이 친해?



당연하지!
우리가 바로
새싹국제초등학교
공식 '딱 친구'거든!



아, 부럽다! 나도 내 편 들어주는
'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대가 꽃 피울 차례 전남 구례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 '꽃 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中 -

급게 반짝이는 물길 곁으로 봄이 흐른다. 노곤한 봄 햇살을 꼭 담은 노오란 꽃잎이 물기 오른 가지마다 송이송이 맺혀들면, 고되었던 지난 계절의 흔적이 흐릿해진다. 그제야 추위에 웅그렸던 손끝을 펴 봄별에 말려본다. 그 간지러운 온기가 심장개로 이르면, 이제 그대가 꽃 필 차례. 그래, 그대 역시 꽃이었다. 봄별이 좋아 온통 봄꽃으로 단장된 구례의 3월 풍경 속으로 걸어가 본다.



봄이 나비처럼 내려앉아 깨달음이 된다, '사성암'

솔직히 덜컹이는 버스에 앉아 꼬불꼬불 산길을 오를 때만해도 이 무슨 사서하는 고생인가 싶기도 하다. 지리산 능선 사이 비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오산 중턱, 섬진강을 코앞에 두고 깎아지른 산비탈 위로 가우뚱 서있는 암자는 그곳에 달기까지의 공을 떠올리자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강 건너편에서 멀리 바라본 암자의 모습이 더 이채롭다 여길 정도.

하지만, 그 곳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또 다르다. 겹겹이 포개진 지리산 능선마다 아련히 피어오른 봄의 기운이 다정한 강을 위로 내려앉는다. 낮가림이 심해 파르르 떨리는 강의 비늘이 눈부셔 가늘게 뜬 시선을 떨어트리면, 구례와 곡성의 넓은 논밭과 낮은 지붕을 인 민가들이 등성등성 마을을 이룬 모습이 차례로 보인다. 햇살이 흩뿌려진 남도의 봄은 친근하고 상냥하다. 아마 지리산 자락을 타고 올랐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남도의 얼굴이다.





절벽 위의 사성암 약사전



사성암, 산신각



사성암에서 바라 본 섬진강

좁은 바위 위에 세워진 암자에는 마당 대신 가파른 돌계단이 있다. 600년 된 귀목나무며, 소원바위 등도 이 계단을 올라야 닿는다. 또 고승인 원효대사가 바위에 손톱으로 새겼다는 마애여래입상 역시 볼 수 있다. 사성암이란 암자의 명 역시 원효대사를 비롯해 의상대사, 고선국사, 건각구사 등 네 명의 고승이 수도했다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세상이 온통 밟그레 물들어가는 해질 무렵, 멀리 시선을 두고 있다면 과연 교과서에서나 보던 고승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알 법도 싶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깨달음이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삶은 벽차기만 하다.



나무가 꾸는 봄날의 샛노란 꿈, '산수유 마을'

단조로운 일상을 약삭스레 버티느라 굳어진 어깨를 두들기며, 다시 겹겹이 포개진 지리산 능선을 따라 다정히 굽이쳐 흐르는 강물 길을 거닌다. 그나마 그 온화한 온기에 취해 걷다보니 단단했던 어깨의 힘이 빠지고, 문득 돌아본 야트막한 돌담 아래는 온통 노란 꽃구름이다.

도통 눈에 담아서 생강나무와 구분 지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 까치발 들어 코골을 대본다. 옹기니 알싸한 생강향이 없으니 네 이름은 산수유구나. 사방 봄맞이 꽃 잔치가 벌어진 남쪽 지리산 자락 아래, 산수유는 사실 한눈에 길손의 걸음을 붙들 만큼 화려한 맛은 없다. 대신 소담한 꽃송이는 꼭 두어 번씩 뒤돌아보게 하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구례 산수유마을 봄 풍경



산수유 마을을 가로질러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줄기



쪽파를 송송 띄운 담백한 다슬기국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이라고 했던가. 11만 7,000여 그루가 꾸는 노란 꿈 그늘 아래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섬진강으로 내달리는 물줄기가 청명하게 흐른다. 청명하고 보드라운 꿈속의 봄이다. 흐드러진 꽃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자니, 이곳이 무릉도원인가 싶다.

하지만, 신선이 되지 못한 중생인지라 제법 길어진 낮 시간 동안 봄의 꿈무늬만 좇았더니 금세 속이 훌훌해진다. 섬진강에 왔으니 메뉴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다슬기 국이다. 허름한 동네 식당에 들어가도 섬진강 맑은 물에서 자란 다슬기를 직접 줍고 손으로 깎다는 주인 할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맑은 국물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 앉은 자리에서 한 대접 딱딱 해치우니 뱃속까지 뜨끈해진다.



이 봄이 전한 희망, 우리도 꽃이었다, '쌍산재'

배가 부르니 이 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책이라도 해볼까 싶어, 구례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인 상사마을로 향한다. 상사마을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고택 쌍산재는 안채와 사랑채, 정자, 사당, 장독대 등의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다, 너른 내부에는 대나무 숲과 차밭까지 갖추고 있다.





‘연초록 숲 한가운데 터를 잡은 고택의 정경은 단아하고 차분하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청림히 자연을 벗 삼았다는 선조의 생가를 그 후손들이 아껴 살고 있다고 하니 과연 세월의 손때로 인해 윤이 반질반질 나는 마루 한 장에도 삶의 생생함이 녹아난다. 잘 손질된 대나무 숲의 바람을 즐기다 뒷문을 찾아 열어보니 거짓말처럼 이번엔 마을의 깊은 저수지가 눈앞에 드러난다. 저수지 주변으로도 온통 푸릇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더 없이 봄에 취해 봄을 만끽했던 여행길.
물론, 이제 돌아가야 할 현실은 채 봄을 맞이하기 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의 봄 햇살로나마 노곤해진 몸과 마음은 조금 더 ‘봄’을 기다릴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봄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이번엔야말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 우리도 꽃이었다.



〈글: 권혜리 / 사진: 김규성 / 사진제공: 구례 군청〉

나물 따다 '날래' 담가먹는, 참나물 김치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철까지 북쪽 대부분의 산에서 피어나는 참나물은 향이 독특해서
쌈을 싸 먹기 좋고 나물로 무쳐내도 좋아 북한 주민들의 일반찬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식재료다.
함경도와 양강도 지방에서는 참나물로 시원한 물김치를 담가 먹는데, 별이 내리쬐는 논밭에서 김을 매다가
시큼하고 향긋한 참나물 김치국물을 마시면 '짱'한 맛이 일품이다.
우리네 김치와는 달리 소금물과 참나물로 금세 만들어낼 수 있으니,
울봄엔 시원한 참나물 김치를 즐겨보자.



요리재료

참나물 500g, 소금 20g, 마늘 40g, 파 50g, 청양고추 2~3개, 고춧가루 15g

요리팁

참나물 김치를 빨리 만들려면 참나물에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인 다음
쌀뜨물로 김치국물을 해 붓고 뚜껑을 꼭 닫아 두면 된다.

Step 1



Step 2





참나물은 잘 다듬어준 뒤 길이 4cm 정도로
자르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다.



파는 3cm 정도로 썰어주고, 마늘은 잘게 다진다.

Step 3



참나물에 파, 마늘, 소금, 고춧가루를
골고루 섞은 뒤 단지에 넣는다.

Step 4



5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삼삼하게 간을 맞춘 소금물을 부어준다.

Step 5



뚜껑을 꼭 덮은 후 하룻밤을 재워주면 완성!

Step 6



완성샷



참나물 요리 속에 담긴 애환

시중의 대형 마트나 시장,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참나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에서는 나물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 부엌살림을 책임지는 여성이 부지런을 떨며 나물을 캐러 다녀야 한다. 김장김치도 떨어져가는 봄·여름철 빈약한 식탁을 채워주던 참나물은 '고생'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지곤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과거 항일활동을 하던 시절에 산나물을 직접 캐 김치를 담가 대원들과 나눠 먹었다며 홍보하고 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산 속에서 산나물로 연명하며 투쟁했다는 것. 그래서일까? 북한은 최근까지도 참나물 김치를 주요 관광지의 식사 메뉴로 빼놓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에 개장한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에서도 산나물밥과 함께 마식령 참나물 김치가 지역 특산물로 제공되고 있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환경 진단과 통일·대북정책 방향 논의 위한 '2017년 1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사무처 회의실에서 '통일환경 진단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17년 1분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2월 20일 인권법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청년분과위원회, 23일 종교복지분과위원회, 24일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27일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와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 28일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통일정책분과위원회·외교안보분과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열린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해결의 필요성, 국제법 원칙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해외 탈북민 문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에 관해 논의했고,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도희운)는 맞춤형 통일교육 강화와 안보·통일 관련 참여 기회 확대 등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는 민간협력 분야에 대한 자율성 부여 문제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 범위와 협력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전홍택)에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전환기 경제분야 대북정책 방향'과 '김정은 정권5년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에 관한 회의가 이루어졌다.

여성·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옥)는 각 지역과 학교를 통한 통일 교육 및 공감대 확산, 남북여성 교류 활성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을,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최명호)는 북한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비핵화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역)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 사업의 분리, 효과적인 교류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해외동포와의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대해, 외교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홍규덕)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평통은 각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과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종합·정리해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초청 '평화통일 강연회' 열어

미국 워싱턴자문위원회(회장 황원균)는 2월 22일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를 초청해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동기 총영사와 양 협의회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강연을 맡았다.

황원균 워싱턴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통일을 향한 열차에 워싱턴협의회와 영등포구협의회가 핵심 역할을 하자"고 말했고, 김원국 영등포구협의회장은 양 협의회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인권문제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미국, EU, 일본 그리고 뜻이 같은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중국이 대북제재 시행에 협조하도록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국 영등포구협의회장은 이날 한국전쟁기념공원 내 '희생의 벽' 건립에 사용할 후원금을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 전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다.



민주평통 '2017년 유럽-인도 통일강연회 개최' 베를린, 비엔나, 인도 델리 순회 강연 실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도 델리를 순회하며 '2017년 유럽-인도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민주평통 권태오 사무처장이 북한 핵 실험미사일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가 주최한 베를린 통일강연회는 2월 4일 베를린 뉘벤픽 호텔에서 열렸고, 유럽지역회의의 오스트리아 강연회는 7일 비엔나 한인문화회관에서 개최됐

으며 서남아협회의 인도 통일강연회는 10일 델리 비반타타지 호텔에서 열렸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현재 국내외 위기를 평화통일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8천만 한민족이 일치하는 통일염원이 필요하다”며 유럽-인도 통일강연이 한반도 통일 환경과 복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해, 모국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 통일안보 교육(대구 수성구협의회)



▼ 제3기 청년통일리더십아카데미 (경기 과천시협의회)



▲ 제17기 제4차 부산지역 운영위원회(부산지역회의)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2월 14일 지난 5주간 진행됐던 ‘제3기 청년통일리더십아카데미’의 대장정을 마쳤고,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3일 ‘북한의 현실과 이해’를 주제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산지역회의(부위원장 이영숙)는 21일 ‘제17기 제4차 부산지역 운영위원회’를 열어 통일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 제17기 제7차 전남운영위원회(전남지역회의)



▲ 17기 제9차 전북운영위원회(전북지역회의)

전남지역회의(부위원장 장영민)는 2월 22일 해남군청에서 전남 22개 시·군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제7차 전남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송현만)는 23일 전북도청에서 14개 시·군 협의회장 및 담당관 등과 함께 ‘17기 제9차 전북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도 22일 거창군청에서 대행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대전 서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옷놀이 행사(충북 충주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2월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탄방초 실내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열었고,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19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윷놀이 행사 및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 전통민속놀이 체험(대전 중구협의회)



▲ 탈북민 전통문화체험(대전 동구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10일 아산외암민속마을에서 '평화통일기원과 전통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11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청을전통문화원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나라사랑 토론대회(경기 파주시협의회)



▲ 통일유공학생 표창(대전 중구협의회)



▲ 우수졸업생 표창장 수여(부산 사하구협의회)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2월 16일부터 2일간 120여 명의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의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한 '나라사랑 토론대회'를 개최했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9일 대성중학교에서 통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통일유공학생 표창'을 수여했다.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2월 13일부터 2일간 관내 총 31개교의 대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우수졸업생들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고,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10일 합천여고와 삼가고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장학금 600만 원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 통일장학금 600만원 전달(경남 합천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대구 달서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설맞이 격려물품 전달(경남 진주시협의회)



▲ 먼저 온 통일을 위한 첫 풀맞이 (경기 의정부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0일 자문위원과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2쌍 합동결혼식'을 열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8일 '어깨동무하기 멘타-멘토 행복한 서울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의정부협의회(회장 김점순)는 22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먼저 온 통일을 위한 첫 풀맞이 행사'를 열어 물품 지원 및 청소봉사 시간을 가졌다.



▲ 새내기 북한이탈주민 온정나누기 (경기 시흥시협의회)



▼ 통일장학금 전달(충북 증평군협의회)



▲ 사랑의 쌀과 생필품 전달(인천 남구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6일 '새내기 북한이탈주민 온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인근 지역 견학을 실시하고 기프트카드를 증정했으며,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는 16일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통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2월 7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 10년 째 같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외활동



▲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미주 제1기 통일 아카데미' 수료식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2월 6일 '탈북학생 초청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해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한 '미주 제1기 통일 아카데미' 후속 연수이며, 서울대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이 참여하며 19일까지 여학연수와 함께 UCLA, 카운티정부 사무실, 리버사이드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1월 26일에는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권석대 회장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LA지역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 설맞이 나눔 한마당(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2월 4일 문화회관에서 관내 거주 탈북동포를 초청해 '설맞이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학생 및 탈북동포 25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이철우 서예가의 '팔천만이 행복한 평화통일'이라는 붓글씨 퍼포먼스와 볼타 국악합주단의 문화공연을 관람한 뒤 다 함께 전통놀이 및 전통음식을 즐겼다.



◀◀ 거북이 마라톤대회(LA협의회)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회장 임태량)는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1월 28일 LA 그리피스 팍에서 열린 '제3회 한국일보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에 참가해 다 같이 함께 걷고 마음을 나누며 통일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민주평통 LA협의회를 비롯해 50여 개의 한인 단체 회원 등 한 인 3,000여 명이 참가했다.

불확실한 시대, 통일준비를 위한 민주평통 역할 강조

‘남북관계 전망과 민주평통의 역할’ 주제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7년에도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진용과 정책방향이 정립될 때까지 북한은 탐색과 선전전을 강화하여 상반기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불안정한 정세에 흔들리지 말고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를 강화하고 범국민적 통일인식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2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중)



제2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 25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지난 2월 16~17일 1박 2일 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제2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약 200분간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일·외교·안보·경제·국제관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 남북관계 전문가 25명이 전원 자유토론 방식으로 참여했다.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미 트럼프 정부 출범 등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2017년 남북관계가 어느 해 보다 중요하고, 통일준비를 위해 민주평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국민동행’, ‘국민공감’, ‘국론결집’ 등 3가지 화두로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켜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분석과 대안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냄으로써 무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통일의 엔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2017년 남북관계, 어려움 속에 보이는 기회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북중·북미·미중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전망과 북핵문제 및 대북제재, 북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갑식(통일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현재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역시 동북아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북한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정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는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에서 약소국이 국제정치의 장기가 됐을 때는 남북관



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핵이 없어야 산다는 걸 보여줘 선행을 바꾼 다음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탈냉전시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의 자율성 역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인도적 문제 등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찾을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중(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은 독자적인 시간표를 갖고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봄·여름·가을·겨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겨울에 맞는 정책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이 우선일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북정책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쓸 것”이라며 “다만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김정은의 올인 전략이 맞부딪힐 때 이는 대한민국에는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 철저히 대비해야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라는 의견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민석 논설위원(중앙일보)은 “북한이 ICBM 마감단계라고 했지만 이번에 큰 실익이 없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급조한 것 같다”며 ICMB 개발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역시 “ICBM은 발사단계가 아닌 준비작업의 마감단계라 할 수 있는데,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게 ICBM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욱 박사(한국국방안보포럼)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실패했다고 평가들을 하지만, 무수단은 대기권 진입 가능성을, SLBM(전략잠수함탄도탄)은 사거리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ICBM 실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령 박사(한국국방연구원)도 “서구 선진국가의 기술에 기초해서 북한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다 보니 그에 따른 위험까지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위험효과에 포인트를 둔 것이라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규덕 교수(숙명여대)는 “북극성 2형의 경우 당분간 액체연료를 교체로 다 바꾸긴 어렵겠지만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걱정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교수(중영대)



남광규 교수(고려대)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의 향방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즉 “새로운 제재를 시행해도 중국이 버티고 있고 북한 스스로 우회로를 찾아내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과 “올해는 제재 효과가 더욱 클 것이며 북한경제 전반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현재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는 “큰 변혁으로 이어지려면 민심이 바뀌어야 하는데, 북한 내 김정은 지지도나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조율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진희관 교수(인제대학교)도 “북한의 엘리트 교체, 경제 및 농업생산 측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불안하다고만 할 수 없다”며 북한을 정확히 봐야 착오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중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중국의 성장 확대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적 파도를 탔던 것일 뿐, 중국이 중저속의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든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자원수출과 인력수출도 예전과 같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나아가 남광규 교수(고려대학교)는 “김정남 살해 사건은 북한 엘리트 사회의 균열 징후이며 김정은의 권력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한일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종 소장(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역시 “북한의 체제 이반에 주목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는 “북한 사회구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말 큰 착각”이라며 “(체제 선전 등으로 인해) ‘공포’가 없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



안제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욱 박사(한국국방안보포럼)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이영종 소장(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종희 교수(선거연수원)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및 통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수암(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 핵문제는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인권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북한 정권의 본질적 변화(인권 개선 등)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령 박사는 “통일정책 안에 대북정책이 있고 대북정책 안에 북핵 이슈가 있는데 북핵 이슈만 전면에 부각돼 있다”며 “안보와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틀로 대북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평통, 국민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조성 앞장서야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는 “한반도 상황은 북핵문제가 중심이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이다 보니 우리의 역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적절히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문제와 시장을 겨냥해 북한사회 민주화를 이루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대북제재 국면 지속 및 사드배치 등 안보 문제에 있어 민주평통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형 박사(한국국제법연구원)



전영선 교수(건국대)



정성호 교수(중앙대)



조남훈 박사(한국국제법연구원)



진희관 교수(인제대)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박종철 박사는 “양극화된 정치권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통일정책의 우선순위, 연계의 정도나 통일 미래상 등에 대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평통이 정책건의를 할 때도 소수의견을 포함, 다양한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기반을 만들고, 정책결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교수(숙명여대)는 “민주평통이 민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한편, 통일교육 및 탈북자 지원 등이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 전문가 (가나다순)

△김갑식(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석(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호(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김창수(한국국제법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태우(건양대 초빙교수)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남궁영(한국외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장)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양욱(한국국제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중(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이종희(선거연수원 교수)

△이호령(한국국제법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남훈(한국국제법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진희관(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소장)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가 소감

“민주평통의 역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 의견 등을 나누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강대국간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도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미국 신정부 이슈 등 변화하고 있는 정세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통일은 우리 한민족의 생존문제입니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독일통일은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었고 동독 지역의 인권문제, 국제정치의 흐름까지 제대로 포착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만큼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도전! 내가 바로 통일 웹툰 작가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도전! 내가 바로 통일 웹툰 작가



내가 쓴 'e-행복한 통일' 웹툰 콘티를 보내주세요!
그간 북한말을 소재로 그려졌던
'통일웹툰'이 2017년부터 가상 통일한국에 사는
가족 3대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통일편익'을 주제로 드디어 하나가 된
대한민국의 삶을 다룬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직접 작가가 되어 보세요.

참여방법 '가상의 통일 한국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1편을
'응모하기'로 보내주세요.

접수기간 2017년 3월 10일 ~ 4월 3일(월)까지

상 품 문화상품권 5만 원권(우수작 3명)
웹진 '통일웹툰'에 게재

응모하러가기

전국 '통일 동아리' 모여! 민주평통이 간식 쏜다!!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행복한통일과 함께하는 3월 신학기 이벤트!

전국 '통일 동아리' 모여! 민주평통이 간식 쏜다!!

3월 신학기를 맞아 민주평통이
전국에 있는 '통일 동아리'를 대상으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통일 동아리의 다양한 활약상, 또는
올 한해 활동계획을 공유해주시면 한 팀을 선정해 활동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두 팀을 선정해 피자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통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지금껏 해왔던 다양한 활약상 및 한해
활동계획을 '응모하기'로 보내주세요.
접수기간 2017년 3월 10일 ~ 4월 3일(월)까지

신나!



선물 받아주세요~



활동비 20만원 지원
(1팀 선정)



피자 쿠폰
(2팀 선정)

응모하러가기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 출석표를 찍어주세요!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두리몽של	**ove1025@naver.com
마미긱	**tro@naver.com
서인애	**ue0350@naver.com
세상바라기	**flays@naver.com
이성균	**khero@naver.com
휘영청보름달	**soyoung79@hanmail.net
통일아저씨	**24705@naver.com
간다	**pe@naver.com
하향	**j34d@naver.com
경이	**ndengnd@hanmail.net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라일구	**u1975@naver.com
봄이양	**oalexiei80@gmail.com
민트쿠키	**teto1030@hanmail.net

하늘천사타이

**tio@naver.com

임성희

**dgmyim@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24-8708

010-**-96-9981

010-**-50-2731

010-**-82-0173

010-**-18-4922

010-**-88-6203

010-**-28-5384

010-**-10-6154

010-**-64-6372

010-**-63-7788

010-**-50-4437

010-**-01-8710

010-**-71-5104

010-**-96-1833

010-**-09-5337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